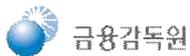


	보 도 반 박			
		보도	배포 시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담 당 자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96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조 한 선 팀 장 (02-3145-7466)

제 목 : 실손보험 인상률 관련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[연합뉴스 12.27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

1. 기사내용

- 연합뉴스는 12.27일 「옛 실손 가입자 2천700만명 내년 15%대 인상 ... 800만명은 9% ↑」 제목의 기사에서
 - ① “내년 실손의료보험(실손)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~16%로 결정됐다.”
 - ② “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%로 조정하라는 ‘의견’을 업계에 제시했다”
 - ③ “금융위는 ...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다 치솟는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5% 수준에서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위가 15% 혹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%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@korea.kr	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